

“종교·민족 초월한 세계인의 축제”

“만해축전이 그 많은 축제 중에서 으뜸인 것은 중세의 그리움을 구현하는 은유와 서사의 탁월한 방편을 찬미하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만해 스님 발명 그대로 이제 만해축전은 불교나 민족의 지류를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발돋움했습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지관 스님의 말처럼 국적과 종교를 초월해 만해 스님(1879-1944)의 얼을 기리는 제9회 만해축전이 11~13일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만해대상 시상식과 각종 경연대회, 심포지엄 등으로 성황리에 펼쳐졌다.

만해대상은 그동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벨스 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잉카 시인 등 세계적인 인물들을 수상자로 배출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故 강원용 목사와 함세웅 신부 등 종교를 초월해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입재식 후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는 올해 수상자인 엘 하지 오마르 봉고 온디바 가봉공화국 대통령(평화), 김남조 시인(문학), 유종호 연세대 석좌교수(학술), 루이스 랭카스터 前 버클리대 교수(포교), 비시누 니스투리 네랄기자연맹 회장(실천), 서인혁 세계국술원 총재(특별) 상을 받았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온디바 대통령이 직접 수상식에 참석해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는 등 비정상적인 관심을 끌었다. 또한 온디바 대통령은 수상 후 즉석에서 삼금 3천만원을 방귀회 한국장애인인협회 회장에게 기부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시상식 전 만난 랭카스터 교수는 “한국불교 연구 초기부터 만해 스님의 불교정신과 문화성

제9회 만해축전 성황리 종료



2007 만해대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온디바 가봉 대통령, 김남조 시인, 유종호 교수, 랭카스터 교수, 비시누 회장, 서인혁 총재.

온디바 가봉 대통령 상금 장애인인협회에 기부 시인의 밤·문학심포지엄 등 국제적 행사 풍성

을 존경해왔다”며 “한국 불교 현대화와 부흥에 크게 기여한 만해 스님의 정신이 담긴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고 감격해 했다.

만해대상 시상식 후 12일 오후 열린 제9회 만해축전 전국고교생백일장에서는 ‘복종’을 주제로 산문을 쓴 김수진양(밀양여고 2년)이 대상(대

통령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문화부장관상 시부문에는 우정희양(안양예고 1년), 시조부문에는 최수현양(종덕고 2년), 산문 부문에는 이주미양(정발고 3년)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시인협회(회장 오세영)도 13일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세계화 시대

에 있어서 동아시아 시의 역할’을 주제로 만해마을 세미나실에서 국제문화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문정희, 김종길, 김광림, 에엔벵(중국), 사가와 야키(일본), 제 바트바타르(몽골) 데이비드 맥켄(미국 하버드대) 교수, 이바나 그루베 로바체코 할스대 강사 등 국내외의 시인 및 학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첫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종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세계화 시대의 민족문화이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를 뜻하는 말일 것”이라며 “서술과 논증과 구성에서 뛰어난 서양의 시와 흥취와 풍경에 있어서 뛰어난 동아시아의 시가 서로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의 데이비드 맥켄 교수도 “한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만이 지닌 고유성을 드러낸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 뒤 “시조가 지닌 운문적 특징은 언어 자체의 다양한 리듬을 장안해 낼 수 있다”며 한국 시조의 중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한국시인과 동아시아시인들이 한자리 모여 번갈아가며 시를 낭송하는 ‘동아시아 시인의 밤’ 행사가 열려 자작시 낭송 등이 이뤄졌다.

또한 같은날 만해마을에서는 월하 김달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심포지엄도 진행됐다. 한국시인협회(회장 오세영)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김달진 문학의 문화사적 의의’, 심경호 고려대 교수의 ‘김달진의 불경 및 한문고전 번역에 대한 규명’, 유성호 한국교원대 교수의 ‘김달진 시의 근원과 지향’ 등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인제/글·사진=김주영 기자**

수행전통 및 망명정부 홍보

티베트 여성수행자 ‘린첸 칸도’ 방한

티베트 여성지도자이자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TNP) 총재인 린첸 칸도(Rinchen Kando Choegyal·사진)가 8월 26일 처음으로 방한한다.



하기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에는 티베트 여성수행자인 델렉 왕모(Delek Wangmo)와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 책임비서인 따시 양조(Tashi Yangzom)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정으로 방한하는 린첸 칸도는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장관을 역임했으며, 1984년 티베트여성연합(TWA)을 창립한 수행자다. 1987년 창설된 종교문화부 산하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의 총재로 활동하며 티베트 비구니들의 교육과 수행,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초청 행사를 공동주관한 불교 여성개발원과 원불교여성회, 참여불교재단은 “한국과 티베트 간의 불교문화 교류 증진과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및 지원 계기를 마련

다.(02)722-2101 **여수령 기자**

신공정소·울걸레정소·구석정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일일이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KV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I Love Buddha / 의도

용정운(www.zentoon.com)

“사찰 수목장 인정하는 예외조항 필요”

‘장사법 개정 및 시행령’ 간담회 열려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교계 장묘시설은 ‘불법시설’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 마련이 필요합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장사법’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마련을 둘러싸고 해당 부처와 불교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 장사법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사찰 수목장이 ‘불법시설’로 취급받게 되는 것은 물론,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설치 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이다. 불교정책기획단(공동단장 승원)은 8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7 장사법 개정 및 시행령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장사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개진했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원철 스님과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 김영국 조계종 총무원장 정책정보를 비롯해 사찰 수목장 관련 실무자인 김기남 은혜

사 사무국장, 박석암 전등사 기획팀장, 이철근 기림사 방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인 팀장은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사찰 수목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내 장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불교계와 문화재청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 관계자들은 “한국 불교는 천 년의 역사를 통해 독자적인 장묘 문화를 형성해왔다”며 “장사법 시행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현재 사찰의 수목장 및 장제 문화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남 은혜사 사무국장은 “은혜사 수목장은 전문가의 조언과

사 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한 후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시설로 취급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마무리된 후 김수일 불교정책기획단 집행위원은 “장사법에 대한 불교계의 의견을 취합한 후 각 부처에 공문으로 발송해 시행령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미래자산에 따른 투자 기회를 열어 드립니다
펀드·변액보험·연금
문의: 최상선 011-253-3747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株)評建이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처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울려 지는 멋있는 도량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진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건설링

(株)評建
서울특별시 중로구 신교동 70-10 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pg@pyeonggeon.com

construction & design **PYEONGKEON**